

새 희망의 길목에서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환자 소개

<개인정보>

- 성명: 성○○(M/66)
- 진단명: 직장암
- 입원 경과: 2017년 8월 직장암으로 타 병원에서 수술(저위전방절제술) 시행 받고 항암 치료 중 2018년 4월 폐, 복막, 간 전이가 확인되어 지속적인 항암치료 시행하였으나 암이 계속 진행하여 2019년 8월 대장 폐쇄 소견으로 인공 항문 치환술 시행하였고, 같은 해 11월 복부팽만 및 소변량 감소를 주소로 응급실 내원 후 양측 수신증 소견 관찰되어 양측 경피적

신루 설치술 시행함. 암의 빠른 진행으로 더 이상의 항암 치료가 무의미한 상태로 호스피스 권유받고 2019.11.26. 본원 호스피스 입원함.

<입원 시 상태>

- 활동상태: ECOG 3 / PPS 50%
- 의식 상태: 명료
- 통증: NRS score 5점 (복부 전반적, 허리)
- 식이: 일반 식이, 최근 양 줄.
- 신체 사정: 복부 압통 및 팽만
- 활력 징후: 정상 범위

진료 부분

<병력>

- 2017.08. 직장암 진단받고 타 병원에서 수술(저위전방절제술) 시행함.
- 2017.09~2018.04 항암 치료 및 골반 부위 방사선치료 시행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소견 보임.
- 2018.07 폐, 복막 전이 의심 소견 관찰되며 복막 전이 의심 부분에 대한 조직검사 시행 후 전이 소견 확인함.
- 2018.09 폐, 림프절, 간전이 소견 확인.
- 2018.10~2019.04 항암 치료 재시행하였으나 진행되는 암 소견 관찰됨.
- 2019.05~2019.08 항암 치료 regimen 바꾸어 시행하였으나 악화 소견 보임.

- 2019.08 복부팽만 및 통증을 주소로 응급실 내원 후 대장폐쇄 소견 보여 응급수술(인공 항문 치환술) 시행 후 장루 형성.
- 2019.11 복부팽만 및 소변량 감소를 주소로 응급실 내원 후 양측 수신증 소견 관찰되어 양측 경피적 신루 설치술 시행함. 암의 빠른 진행으로 더 이상의 항암 치료 무의미한 상태로 호스피스 권유받음.
- 2019.11.26 본원 호스피스 병동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 시행 중.

<주 증상에 따른 진료과정>

- # 1. 복부 통증 및 팽만감

(평가)

- 직장암 및 복강 내 암종증 소견
- 장루 있으나 지속적인 복부 팽만감, 활동 시 장루의 돌출로 인한 불편함과 통증 호소
- 소량의 식사에도 식후 복부 팽만감과 통증 호소

(치료 계획)

- 기존 경구 마약성 진통제 Targin CR 20mg BID 로 통증 조절하였으나 지속해서 NRS score 4점 이상 관찰되어 증량함. 이전 30mg 으로 올렸을 때 어지럼증 심한 증상 보여 통증 조절에 대해 소극적인 상태 관찰됨.
- 진통제 변경 : 통증 조절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주사제 oxynorm 30mg으로 변경함. 돌발 통증 있을 시 PRN 즉시 사용 필요함을 교육 드림.
- 장루부분 장루 간호팀과 함께 추시함. 돌출 소견 있으나 괴사 및 염증 소견 없는 상태로 관찰함. 복압 증가되는 자세 최소화할 것을 교육 드림.
- 취침 전에 한번 변비약(+Quetiapine) 복용 이외의 경구 식이 섭취 금지

(반응)

- oxynorm 주사제로 변경 후 부작용 없이 통증 조절 잘되는 양상 보임.
- 장루 부분 돌출 시 통증 악화되나 안정적인 자세 취할 시 통증 조절 잘되는 모습 관찰됨.
- 경구 식이 섭취 이후 복부 팽만감과 통증 감소됨.

2. 숨 차는 증상

(평가)

- 타 병원 시행한 CT 및 본원 x-ray에서 폐 전이 진행된 양상

(치료 계획)

- 과도한 활동 삼가 및 숨 차는 증상 보일 시 PRN nasal O2 및 oxynorm 주사제로 조절함.

(반응)

- 환자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증상 조절하여 증상 발생 빈도 줄어들음.

3. 불면

(평가)

- 환자 평소 새벽에 일어나거나 운동을 하는 습관이 있었던 자료, 호스피스 입실 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면 지속됨.
- 집에서 새벽에 3차례 좌욕을 하며 변실금에 대한 보존적 치료 해왔으며 이에 대한 강박감 있음.

(치료 계획)

- 낮에 활동하며 낮잠 최소화하도록 교육함.
- Quetiapine 25mg 취침 전 추가함.

(반응)

- 입실 후 일주일 동안 지속적인 불면 양상 보이며 낮에 힘든 모습 보임.
- 지속적으로 교육하며 새벽 좌욕 횟수 줄어들면서 입실 한 달 정도 지난 시기에 불면 양상 완화되는 모습 보임.

간호 부분

1. 종양과 관련된 통증

(사정)

- “배 아파서 원래 잠을 깊게 못 자요. 자다가도 통증이 있으니 편하게 자질 못 해요. 낮에도 움직이거나 밥을 먹고 나면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라고 함.

- 복부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 힘들어하며, 밤에도 인상 쓴 표정으로 깊이 수면 취하지 못하고 새벽에 일어나 통증 조절 위해 따뜻한 물로 좌욕을 하거나 복부에 warm bag를

하는 모습 관찰됨.

- 수액에 마약성 진통제 Oxynorm 30mg 혼합하여 8cc/hr의 주입속도로 투약 중으로 복부 통증 NRS 3점 자가 보고함.

(계획 및 중재)

- 잦은 사정을 통하여 표현되지 않는 통증이 있는지 확인함.
- 통증 및 신체 불편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도록 격려하고 경청함.
- 환자와 가족에게 통증 관리와 진통제 사용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제공함.
- 보호자에게 좌욕, 마사지, 관심 전환 등의 비약물적 통증 중재 방법 및 필요성에 대해 교육함.
- 활동 시 심해지는 통증 예방하기 위해 무리한 활동 하지 않도록 하며, 되도록 휠체어 거동 또는 침상 안정을 하도록 격려함.
- 돌발성 통증 호소 시 마약성 진통제 (PRN) oxynorm 3mg IV 투여 시행하였음.

(평가)

- 좌욕, 마사지 등의 비약물적 통증 중재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함.
- PRN 진통제 투여 후 통증이 해소되고 조절됨을 이야기함.

2. 임종 과정과 관련된 우울

(사정)

- “내가 이런 운명인 걸 어떻게 하겠어요.”라고 말함.
- 본인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 장황하게 이야기하며 눈물 흘리는 모습이 자주 관찰됨.

(계획 및 중재)

- 우울의 정도, 원인, 악화요인 및 완화요인 등을 사정함.
- 우울, 슬픔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격려하고 느낌의 정당성을 인정함.
- 가족이나 친구들이 대상자와 함께 머물 수 있도록 함.
- 근무시간마다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 나누며 함께하는 시간을 가짐. 환자가 말을 하지 않으면 침묵 속에 함께 있어 줌.
- 환자의 손을 잡는 것과 같은 간단한 신체적 접촉을 제공함.
- 판단하지 않고 수용하는 태도로 환자의 말을 경청하여 죽음/임종과 관련된 영적인 면에 대해 대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줌.
- 환자에게 영적 위안이 되는 특별한 기도문이나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동의를 구한 후 기도문을 인용하여 함께 기도함.
- 환자의 기호에 맞추어 마사지, 온도조절, 구강 간호 등의 안위요법을 제공함.
- 목욕, 세발, 미용 봉사, 요법프로그램, 가족 교육 등의 원내 지지체계를 이용하도록 격려함.

(평가)

-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 편안해 졌어요. 남은 시간이라도 남들에게 나누면서 잘 살아 보려고요.”라고 함.
- 음악요법 지도사의 도움으로 배우자와 함께 웃으며 노래하며 즐거운 시간 보냄.
- 원내 지지체계(목욕, 세발, 미용 봉사, 요법 프로그램, 가족 교육 등)를 적극적으로 이용함.

사회복지 부분

<개인력>

- 기훈, 1남 2녀의 자녀

- 17세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 제도교육에는 뜻이 없음을 깨닫고 혼자서 성공과 넓은 세

- 계에 대한 도전을 품고 서울로 상경
- 외향(자유롭고 틀에 매이지 않음. 다방면에 관심 많음. 예민함)
 - 가치관과 주관이 뚜렷함.
 - 감성적 부분도 발달
 - 취직하여 자리 잡아가던 중에 서울로 환자를 찾아온 부의 부탁으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 생활 다시 시작함.
 - 22세에 이미 기사 딸린 자가용 둘 정도로 사람 사귀는 일과 업무에 능통했음.
 - 사업, 장사, 건축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활동
 - 1981년 결혼 후 배우자와의 소통보다는 주관적 결정 많았고 외부 사람들과의 만남(남여 불문)에 큰 비중을 둠.
 - 원하는 대로 이루고 누리는 생활 유지
 - 1999년경부터 산에 심취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새벽 1시, 3시 상관없이 원하는 때 산에 오름.
 - 한겨울에도 산 정상에 올라 탈의 후 입수하고 산에 머무르는 것 좋아했음.
 - 5년 전 산행에 동행했던 지인이 산에서 급사하는 것 목격
 - 2017년 암 진단 후 수술 수차례, 항암 수십 차례 진행.(2019년 9월까지 면역항암제 치료)
 - 폐와 간 전이, 암 진단 후 매일 통증 호소, 1달에 20일 병원 다님.
 - 암 진단에 삶을 정리할 시간이 주어진 것에 감사, 현재 더 망가진 모습 되기 전에 임종하고 싶다고 표현함.
 - 심리적 우울함에 대한 방어적 표현일 수 있어 추후 관찰 필요.

<가족력>

- 배우자(62세): 주부, 개신교, 결혼 후 환자의 일방적 의사소통으로 인한 스트레스 많았으

나 직장암 진단과 투병 과정을 통해 강한 연민을 가지게 됨. 투병 기간의 정성과 고생에 대한 보상으로 환자의 치유를 바라고 있음. 임종 및 사별에 대한 두려움과 우울감 강함, 주 돌봄자

- 장녀(39세): 미혼, 개신교, 디자인 관련 회사 사직 후 현재 프리랜서로 일함. 내성적 성향으로 환자의 독선적 성격과 비난으로 인한 상처 깊고 환자로 인해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강했음.
- 차녀(37세): 서울 출생, 대학 졸업 후 호주로 언어연수 떠남, 호주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결혼하여 정착.
- 장남(34세): 미혼, 사업 운영 중. 막내아들에 대한 편애로 가족을 향한 환자의 독설과 독단에서 가장 자유로웠음. 필요 시 주야간 가리지 않고 방문하여 간헐적 돌봄 제공하고 있음.

<경제적 상황>

- 자가
- 건강보험
- 투병 전까지 사업 운영했으며 자녀들의 수입 및 임대료로 인한 수입 있음.

<사정>

- 환자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상적 이미지를 위해 질병 진행 및 임종에 대해 순응적이고 안정적인 수용의 모습을 유지해왔음. 그러나 가장 내밀한 모습이 노출되는 가족관계에서는 통증에 대한 불편함, 두려움과 삶에 대한 강한 집착 등 임종에 대한 직면을 회피 또는 거부하고 있음.
- 환자는 타인과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유지하는 반면 가족과의 의사소통이나 관계 형성에서는 권위적이고 일방적이며 비

난적인 의사소통 유형이 고착되었고 투병의 과정을 통해 강화된 경향 있음. 이는 가족관계 안에서 불화의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말기 암 과정에 있는 환자와 가족이 다루어야 할 미해결 과제라 할 수 있음.

- 배우자는 환자의 질병 진행 과정 및 임종에 대해 극도의 불안과 우울을 표현하고 있음. 환자와의 관계 안에서 강압적으로 종속되었던 것에 대한 불만도 있으나 환자의 부재 시 독립적 생활 영위에 대한 불신, 자존감의 결여를 드러냄.

<개입 및 결과>

- 환자의 이성적 사고 능력 및 다학제적 접근과 서비스를 통한 질병 진행 과정 및 임종

의 수용을 도모하여 임종에 대해 안정적 수용 이룸.

- 환자의 에너지를 내면으로 전환하고 집중함으로써 자신의 삶과 관계, 특히 가족관계에 대한 성찰과 내적 작업, 요법프로그램을 통한 성찰의 강화 및 새로운 과제 설정과 수행을 지원함. 가족관계 안에서 사용한 비난적 의사소통 및 그로 인한 가족의 심리적 상처에 대한 직면과 용서 등 가족의 화해를 이룸.
- 배우자의 자기표현을 독려하고, 감정 환기를 위한 기회 제공 및 자아개념 강화를 위한 지지적 상담으로 사별에 대한 슬픔과 우울의 감정을 해소하고 완화하고 건강한 자기인식을 강화함.

원목 부분

<종교적 배경>

개신교 신자이나 열심한 신자는 아니었음. 하느님보다 산을 더 좋아하였던 듯 살아옴. 호스피스 입실 후 조금씩 돈독하여짐.

<신앙에 대한 환자의 고백>

하느님께서 부르시면 나는 언제든 갈 준비가 되었지만, 아내에게 미안함. 나는 준비가 되었는데... 부인이 염려된다. 부인은 임종이 가까우니 무당이 “뭘해라. 뭘해라”하고 또 누가 “뭘해라. 뭘해라” 한다며 이야기하지만 다 부질없다고 생각한다. 하느님께 모두 맡기었으니 하느님께서 부르시면 환자는 언제든 간다는 생각이다. 아프면서 “하느님”을 더욱 가까이 만난다. 매일 7시나~9시 좌욕 후 꼭 5층 성당에 들린다. 못 다녀온 날은 다음 날이라도 다녀온다고 이야기하면서 “신앙은 정성이다.”라고 함. 성당을 다녀올 수 있음을 은총으

로 여기심. 하느님께서 나를 안아주시니 그분을 찾아간다.

배우자는 계속 환자의 상태를 못 받아들임. “당신은 일어날 거예요.”

배우자는 환자의 마지막을 애써 외면하려고 한다. 환자는 부인에게 미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밤에 내 침대 옆에 누워있는 모습을 내려다보면 가슴이 미어진다. 마치 뺨튀기 과자처럼 무너지는 아내의 모습...”

<영적 돌봄>

눈을 감고 있어서 조용히 기도만 하고 돌아오길 반복하다가 신앙에 대하여 깊은 대화를 하기 시작함. 하루하루 지나면서 자신을 돌볼 시간이 되었음을 감사드리며 “나날이 은총이다.”라고 표현.

산을 좋아하기에 특히 야간산행 이야기를 하면서 “한 곳으로 난 산길을 쪽 걸어가다 보

면 한밤중에도 정확히 길이 보인다. 신앙도 그렇다. 정상을 가보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모른다.”

선종 기도를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마음이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환자는 배우자에게 ‘사랑한다. 고맙다.’라고 해본 적이 없어 아내에게 미안하고 가슴이 아픔을 표현하면서도 하느님께 갈 준비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있음.

“이 밤을 무덤에서 편히 쉬게 하시고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함께

선종의 은혜와 주님의 나라 이야기를 하며 사랑하는 이들을 기도 안에 만날 것을 희망하면서 하루하루 준비하고 있음. 특히 호스피스병동에 대해 감사하는 것 중 하나가 종교적 심성의 변화와 신앙의 크기가 가능할 수 없이 커졌음에 대한 것. 매일 매일을 새롭게 지내고 있음. 배우자와 더욱 많은 대화를 하면서 서로 많이 이해하게 됨. 신앙생활 안에서 생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환자의 선종을 기원하는 기도 함께 바침.

봉사자 부분

내가 처음 만난 68세의 ○○○님은 직장암으로 2019년 11월 26일에 호스피스병동으로 입원을 하셨다. 아산병원에서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수술하고 치료하시다 2019년 8월 말기 암 진단받아 호스피스 권유받고 입원하셨다. 12월 3일 이발. 면도. 샴푸. 발 마사지하며 대화하는데 자원봉사자에게 너무나 큰 감탄과 감동을 연발하셨다.

환자는 7남매의 맏이로 가족과 집안 공동체 모두를 나보다 먼저 생각하고 맏이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강한 사람이라고 하셨다. 산을 좋아하셔서 일과가 끝나면 밤 등산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몸이 아파지니까 가족을 더욱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시며 부인과의 관계가 이리도 중요한데 모르고 살았다고 안타까워하셨다. 특히 용서를 청하는 기도를 통해 그동안의 자신의 삶을 다른 시선으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시며 이런 봉사의 삶도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고 하셨다.

2번째 봉사료 발 마사지를 하는데, 외출하

여 경기 양평에 뗏자리를 보고 오셔서 마음이 편해지셨다고 하시면서 보름달 뜰 때, 초승달 뜰 때 꼭 한번 가까운 산에 가보라고 권유하기도 하시고 음악치료를 받으며 그동안 자녀에게 하지 못했던 말을 노래로 불러 CD로 굿기로 했다며 자랑하셨다.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조언을 해주었고 아내와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계셨다. 환자는 아내에게 “나는 당신의 아내여서 행복했어요.”라는 말을 듣고 싶다는 소망이 있다고 하셨다. 호스피스 봉사를 통해서 환자의 고통을 심리, 정서, 영적 고통의 완화를 위한 몫을 담당하기도 하고 삶을 되돌아보며 회복시키는 현장에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아요. 나보다 못한 이웃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자원봉사가 결국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지인에게 들은 이 말이 가슴 깊이 와 닿는 호스피스 봉사이다.